**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36절>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끼십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 “나의 모든 행동이 나 자신에게서 말미암는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보통 ‘자유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주위에 피해주지 않으려 늘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주위의 강제에 의해 억지로 하는 일이거나, 사회에서의 자기 위신이 손상되는 것이 두려워 마지못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자유로운’ 삶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위 사람이나 환경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 자신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아무 죄책감 없이 그런 삶을 지속하는 것을 두고 만약 자유로운 삶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러한 자유는 더이상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 힘들 것입니다.

참 자유는 그 결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속이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그 속에 ‘해방’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나를 구속하거나 얽매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의지로 이전엔 해내지 못하던 긍정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진정 ‘자유롭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의미의 자유를 원치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문제는 ‘이 참 자유의 삶이 우리 인간에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론 그것은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참 자유의 삶으로의 이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자유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31-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자기를 믿었던(had believed) 유대인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보다 정확합니다.

그들은 바로 앞 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그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이란,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그분이 행한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요2:23).

하지만 이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점점 그들 마음에 걸림이 되면서 이제는 그분을 죽이려는 무리들 중에 끼게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요6:66,8:37).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금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반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합니까?”

자유를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서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다고 이 사람이 우리를 종으로 보는 건가?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로마가 힘으로는 우리를 종처럼 부릴 수 있을 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종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자부심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자유니 구원이니 얘기하면서 나를 귀찮게 하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지금 자유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 속에는 그 말이 거할 곳이 없고, 심지어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진리 앞에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도, 아브라함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라,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를 따라 살고 있단 뜻이다. 지금 너희는 자유인이 아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죄의 종’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경쓰지 않고 습관적으로 자기 뜻만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사는 것을 은근히 뽐내는 사람,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으며 사는 사람,

설령 그들이 사회적 범죄자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죄의 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자유함 속에 의를 행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본문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었고, 또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자유함 속에서 행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방민족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수단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혹은, 그것마저 없다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입니다.

혹은, 그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주는 무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진리의 본보기이자 특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처럼 진리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진리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요8:42).

또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진리이신 아버지와 늘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요8:29).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그리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곧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36절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모르거나 무관심한 채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이 이처럼 오류와 무지의 상태 속에 있었을 때, 과연 그들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와 무지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뛰어드셔서,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휘둘리며 죄의 종된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다른 그 무엇보다 환영하여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말씀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것이 불합리하고 부자유한 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해갈 때, 곧 우리는 오직 이 말씀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리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줄 은혜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천 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진리와 자유를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친히 사람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이후 교회는 ‘성례전’이라고 불리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바로 이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잘 아시듯, 카톨릭교회에는 일곱 개의 성례전이 있고, 우리 개신교회는 오직 두 개만을 성례전으로 인정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설교’와 ‘성만찬’입니다.

설교가 말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만찬은 보여지고 체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선포되고 또한 들려지는 설교는 거짓되고 추악한 것들을 제압하는 하나님 말씀 자체의 권위로 우리를 진리를 향해 이끌어줍니다.

또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베푸시며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 이후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온전히 성취된 그 은혜의 말씀은 늘 다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 교회가 부패하면서 이 설교와 성만찬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직자 외에 일반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선포되었습니다.

성만찬의 경우, 빵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잔은 오직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단종성찬’이라고 하는데, 중세 어느 시점부터 약 200년간 성만찬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를 함부로 흘리는 불경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지만, 분명 이것은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당시 성례전은 성도들을 진리를 향해 가까이 이끌어주는 은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불의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 기능을 상실한 성례전에 대한 회복과 개혁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체코 땅이었습니다.

‘체코종교개혁’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얀 후스’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후스가 활동하기 이전부터 이곳에는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1372년에 매춘녀들을 위한 신앙공동체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던 ‘얀 밀리츠’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당시 프라하에 매춘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들의 반복되는 고해성사를 받던 밀리츠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와 미사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들이 참다운 회개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밀리츠는 매춘녀들을 모아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앙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코어로 설교하며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후 이러한 흐름은 1402년부터 약 10년간 베들레헴채플 설교자로 봉직하며 성도들을 진리를 향해 이끌어주고자 했던 얀 후스와 그의 동료들을 통해 이어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곧 반대세력들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고, 결국 후스는 콘스탄츠 공의회에 소환되어 1415년 7월 6일 화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한편, 후스의 동료 야꼬우벡은 1414년 가을,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시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찬식 때 빵과 잔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양종성찬’을 프라하의 베들레헴채플과 벽속의마르틴교회에서 약 200년만에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15년 봄, 콘스탄츠 감옥에 갇혀 있는 후스의 승인을 받아 다른 교회들에서도 이 양종성찬이 시행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만찬이 다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1414년 가을 프라하에서 그 양종성찬이 시행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월 12일 주일 오전에 베들레헴채플에서 기념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프라하에 사는 우리 한국 개신교 크리스찬들도 이 뜻깊은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님의 떡과 잔에 함께 배제됨 없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체코의 순교자 얀 후스는 ‘신실한 신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신실한 신자여! 죽기까지 진리를 찾으라. 진리에 순종하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선포하라. 진리를 실천하라. 진리를 보호하라. 왜냐하면 진리는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고립시키는 죽음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자유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 진리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움직이는 삶 속에서만이 우리는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 나아가는 것이 곧 ‘구원’이며, 그 자유를 누리고 또 전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나 중심의 값싼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참된 자유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참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겠다고 다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 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